

MS MP3P 준 100만대 판매 돌파

2006년 11월 출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MP3P 준(Zune)의 누적 판매량이 100만대를 넘어섰다.

MS 엔터테인먼트 디바이스 사업부문의 로비 바크 사장은 5월 28일 샌프란시스코



코 크로니클과의 인터뷰에서 준의 발매 6개월만에 판매대수 100만대 돌파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바크 사장은 "압도적인 성과는 아니지만 시작이 좋다"며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기반 MP3 플레이어 시장에서 1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S는 6월까지 100만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한달 앞서 목표치에 도달하게 됐다.

준은 3인치 LCD 스크린에 30GB HDD를 장착하고 있으며, FM 라디오 수신기능을 가지고 있다. 준 사용자들끼리는 무선 랜을 통해 함께 음악을 들을 수도 있다.

한편 경쟁 제품인 애플 아이팟은 지난 6개월 동안 2500만대가 판매돼 준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4월 9일에는 누적 판매대수 1억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브라질, 미 IT기업 새투자처로

올해 205억달러로 예상되는 미국기업들의 대 브라질 IT 투자액수가 오는 2011년에는 323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때 브라질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지만 최근 몇 년간에 걸친 경제개혁으로 환율이 안정되면서 미국 기업들의 주요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발달한 금융시스템과 친 기업 정서도 매력으로 손꼽힌다.

이에 따라 델과 IBM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공장을 신설하는 한편 현지 업체들과의 제휴에 나서면서 브라질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델은 지난 5월 상파울로 인근에 대규모 컴퓨터 조립공장을 완공한 데 이어 브라질 현지 직원의 수를 2005년의 2배인 1200여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e베이, 태국서 e커머스 사이트 개설

e베이가 태국 포털업체 사눅과 손잡고 현지에서 글로벌 e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한다고 지난 5월 29일 보도했다.

글로벌 e커머스 사이트는 태국어로 운영되며 국경을 초월해 세계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출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눅은 최근 e커머스 관련 자회사를 설립했으며 e베이와 사눅은 이 신규법인을 통해 5~7개월 후 서비스를 정식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한편, 사눅은 아프리카 최대 미디어기업 냅스터가 100%지분을 소유한 MII의 자회사이다.

미국 기업들 IT투자 증가 예상

최근 미국 기업들이 IT 보안 및 네트워크 분야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투자증가율이 지난해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기업들의

IT 투자도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포레스터 리서치의 경우 올해 투자증가율이 1~2%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최근 IDC 등 시장조사기관들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IT 투자가 지난해 못지 않게 활기를 띠면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벗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대형 토목건설 기업인 플루어(Fluor)는 올해 IT 예산을 지난해보다 11% 늘려 잡았다. 회사는 늘어난 예산을 신형 서버 구입과 보안역량 강화에 투입할 계획이다. 플루어의 레이 버나드 최고정보책임자(CIO)는 "건설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고객들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IT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의 연간 IT 예산은 3억~5억달러 정도다.

잔디 관리업체인 트루그린 랜드케어(TrueGreen Landcare)도 올해 IT 투자액수를 지난해의 1000만달러에서 5% 정도 늘릴 계획이다. 회사측은 업무관리 소프트웨어를 새로 교체할 필요가 있어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하고, 내년 투자액수도 올해와 비슷한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약기 제조회사인 아마하의 미국법인 또한 IT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몇 년간 IT 지출액을 일정하게 유지해 왔던 이 회사는 올해에는 전년 대비 20% 정도 늘려 인터넷전화(VoIP)와 이메일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프트뱅크텔레콤, 인도 IT시스템 시장 진출

지난 5월 28일 소프트뱅크텔레콤은 6월 뉴델리에 현지법인 '재팬텔레콤인디아'를 설립, 현지에 진출한 일본 기업용 사내 통신망 구축과 보수 등의 서비스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소프트뱅크텔레콤은 인도에서 국제 통신 서비스를 개시한 상태다. 향후 자동 차입계를 중심으로 자국기업들의 진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팬텔레콤인디아는 자본금 약 2500만엔으로 소프트뱅크텔레콤이 전액 출자한 싱가포르법인 '재팬텔레콤싱가포르'가 99%를, 소프트뱅크텔레콤이 1%를 각각 출자한다. 3년 후 매출 50억엔을 목표로 한다.

향후 중동 지역 서비스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인도네시아에도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코니카미놀타홀딩스, OLED 조명기기 상용화 계획

코니카미놀타홀딩스가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과 제휴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조명을 세계 최초로 상품화할 계획이라고 지난 3월 27일 보도했다.

코니카미놀타홀딩스와 GE는 전기로 발광하는 수지의 한 종류인 OLED로 종이처럼 얇고 벽 등 평면에 붙일 수 있는 조명기기를 3년내 개발, GE 브랜드로 출시할 계획이다.

OLED 조명기기가 개발되면 약 9조엔에 달하는 세계 조명기기 시장에 일대 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OLED의 활용은 지난 1880년대 백열등,

1930년대 형광등의 등장에 이어 조명 분야 기술 혁신으로 받아들여 진다. 토마스 에디슨이 설립한 회사를 모체로 하고 있는 GE는 백열등·형광등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한 업체이기도 하다.



GE는 코니카미놀타가 보유하고 있는 OLED 기술을 활용해 현재 조명기기 분야에서는 세계 1위 업체인 네덜란드의 필립스를 추격한다는 전략이다.

코니카미놀타는 지난해 사진 필름 제조기술을 응용해 OLED를 활용한 박형 조명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그동안 과제였던 밝기나 수명을 형광등 수준으로 개선해 대형 조명기기 업체들과의 제휴를 모색해 왔다.

후지쯔, 구부러지는 컬러 e페이퍼 단말기 내년 출시

후지쯔는 컬러 e페이퍼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개인정보 단말기 '플레피아'를 최근 개발하고 내년 중 시판할 예정이라고 지난 4월 23일 밝혔다.

'플레피아'는 후지쯔연구소와 후지쯔 프론텍이 지난 2005년 7월 공동 개발한 콜레스테릭 액정 크리스탈(CLC) 방식 컬러 e페이퍼 기술을 활용한 제품. 두 회사가 개발한 컬러 e페이퍼는 빨강·초록·파랑의 세가지 컬러 층으로 구성돼 기존 LCD패널에 쓰이는 컬러필터나 편광필름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두 회사는 컬러 e페이퍼와 정보단말기를 하나로 통합해 e북과 PDA 기능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플레피아'는 윈도CE 5.0을 기본 운영체제로 하며 책과 웹 뷰어, PDA 기능을 갖췄다. 화면 크기에 따라 12인치와 8인치 2개 제품이 있으며 해상도는 최고 수준인 XGA 등급이다. 색상은 최대 4096가지를 구현할 수 있지만 양산체제가 본격 가동되는 시점에는 26만가지 색상을 구현한다는 것이 후지쯔의 목표다.

노키아, 중국 영어교육 시장 진출



노키아가 중국에서 휴대폰 영어교육 사업에 진출, '휴대폰 판매'와 '신규 수익원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다.

지난 5월 29일 노키아가 중국 1위 영어교육 콘텐츠 업체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테크놀로지그룹과 손잡고 휴대폰에서 영어 강의를 내려받아 들을 수 있는 '모바일에듀'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텍스트와 동영상 강의로 구성된 이 서비스는 글로벌 비즈니스에 관심이 큰 중국 직장인들을 위한 비즈니스 영어회화가 주 내용이며 다운로드당 26센트의 이용료가 부과된다.